

2015. 11. 23. ~ 11. 29. 주간

61  
VOL

# 전남농업정보

## 주간 기상전망

## 농작물 재배 동향

청양계꽃고추 · 일반계꽃고추 11~12월 정식 의향

## 농작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채 · 엽근채소 가격동향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담양군, 대숲맑은 유기농 쌀&전통식품 미국 첫 수출길 열었다!

“보성 참다래, 미국 수출길 올랐다”

한국식품 중국시장 찾아 베이징, 칭다오 동시 방문

## 저비용 · 고소득 농업기술정보

FTA 전남 농 · 축산 해법은 ‘저비용 고부가가치농업’

누에 · 뽕나무 새 품종에 이름표를 붙여 줘~!

포도나무 박피 노동력 85% 절감 ‘환상박피기’ 개발

## 정책 동향

영암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 제2회 미래농업스타상 수상

우수관리 농산물(GAP) 가까운 율가홀푸드 매장에서!

## 해외 농업정보

브라질 주요 대두 생산지역 파종 가속화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23.(시카고 선물거래소)



# 요 약

## ☞ 주간 기상전망 ..... 7

- 찬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6~27일은 눈 또는 비가 오겠고, 29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음.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음.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1~5도, 최고기온 : 10~14도)보다 낮겠음
- 강수량은 평년(1~3mm)보다 많겠음.

## ☞ 농산물 재배 동향 ..... 10

- 청양계핏고추,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 일반핏고추,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

## ☞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 11

### ▶ 과 채 : 딸기 · 수박

- 딸기 :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27,000~30,000원/2kg으로 전망
- 수박 : 출하량 소폭 증가와 소비대체품목의 출하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보다 낮은 850~950원/kg으로 전망

### ▶ 엽근채소 : 배추 · 무

- 배추 :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3,500~4,500원/10kg으로 전망
- 무 : 작년 및 전월보다 상승한 8,500~10,500원/18kg으로 전망

☞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12

- ▶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 임시개장
- ▶ 광양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위해 농민과 공무원 머리 맞대!
- ▶ 차세대 슈퍼푸드 히카마(멕시코 감자) 담양에서 날개 달다.
- ▶ 구례 농·특산물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에서 입상

☞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16

- ▶ 담양군, 대숲맑은 유기농 쌀 & 전통식품 미국 첫 수출길 열었다!
- ▶ “보성 참다래, 미국 수출길 올랐다”
- ▶ 한국식품 중국시장 찾아 베이징, 칭다오 동시 방문

☞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20

- ▶ FTA 전남 농·축산 해법은 ‘저비용 고부가가치농업’
- ▶ 누에·뽕나무 새 품종에 이름표를 붙여 줘~ !
- ▶ 감귤 유기재배 매뉴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 포도나무 박피 노동력 85% 절감 ‘환상박피기’ 개발
- ▶ 과수원도 겨울 준비!
- ▶ 비닐하우스 새는 열 잡는다.
- ▶ 우리 지역에 알맞은 찰기장 품종 선발

❁ 정책 동향 ..... 30

- ▶ 영암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 제2회 미래농업스타상 수상
- ▶ 전남 조사료 전국 최고 품질 입증
- ▶ 우수관리 농산물(GAP) 가까운 율가홀푸드 매장에서!
- ▶ 한·중 구제역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해외 농업정보 ..... 36

- ▶ 브라질 주요 대두 생산지역 파종 가속화
- ▶ 미국 겨울 밀 등급 개선 전망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5. 11. 23.(시카고 선물거래소)

-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 평원과 중서부지역 우호기후 탓에 하락 마감함. 이미 전 세계적인 풍작상태에 수확이 더할 것으로 보여 하방 압력을 더욱 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보다 많은 수출 수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혼조세가 예상됨.
-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남미 기후가 작황에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탓에 하락함.
-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지역 건조했던 기후가 비로 인해 개선되고, 전 세계적 풍작 상황들로 인해 하락함. 확인되지 않은 목적지에 12만 톤의 미국산 대두가 수출된 것으로 USDA는 보고함.

❁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39



## ☼ 주요 농축산물 가격 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5. 11. 23.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3)	1주일전 (1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 작 품	쌀(일반계)	20kg	37,000	37,000	37,340	41,700	42,100	↓11.3	↓12.1
	콩(백태)	35kg	146,400	146,400	139,000	142,000	190,250	↑3.1	↓23.0
	고구마(밤)	10kg	21,400	21,600	22,040	19,550	21,943	↑9.5	↓2.5
	감자(수미)	20kg	25,400	25,600	24,640	20,400	27,413	↑24.5	↓7.3
채 소 류	배추(가을)	1kg	510	400	-	421	639	↑21.1	↓20.2
	양배추	10kg	3,800	3,900	4,600	4,400	6,367	↓13.6	↓40.3
	오이(다다기계통)	10kg	29,667	22,333	13,867	25,333	25,784	↑17.1	↑15.1
	애호박	8kg	23,200	20,400	13,360	21,200	21,387	↑9.4	↑8.5
	토마토	10kg	16,800	17,000	20,760	22,900	27,100	↓26.6	↓38.0
	무(가을)	20kg	8,900	8,800	-	9,520	11,613	↓6.5	↓23.4
	당근	20kg	27,000	27,000	29,520	16,850	31,060	↑60.2	↓13.1
	건고추(화건)	60kg	806,000	806,000	816,000	860,000	922,667	↓6.3	↓12.6
	풋고추	10kg	35,800	32,000	19,240	63,500	50,720	↓43.6	↓29.4
	마늘(난지)	10kg	56,000	56,000	54,200	33,800	36,600	↑65.7	↑53.0
	양파	20kg	33,200	32,400	28,600	10,400	17,987	↑219.2	↑84.6
	대파	1kg	1,880	1,810	1,612	1,045	1,605	↑79.9	↑17.1
	파프리카	5kg	12,800	13,000	13,640	20,900	24,863	↓38.8	↓48.5
	방울토마토	5kg	10,000	10,200	10,520	11,150	15,780	↓10.3	↓36.6
	수박	1개	10,200	7,400	7,260	7,300	9,723	↑39.7	↑4.9
과 일 품	사과(후지)	15kg	35,000	36,000	-	36,167	46,176	↓3.2	↓24.2
	배(신고)	15kg	41,800	42,000	37,920	30,850	40,897	↑35.5	↑2.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11/23)	1주일전 (11/1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34,000	534,000	530,000	511,000	554,250	↑4.5	↓3.7
	들깨	45kg	418,000	418,000	418,400	407,600	385,533	↑2.6	↑8.4
	새송이버섯	2kg	8,200	8,400	8,200	6,800	8,250	↑20.6	↓0.6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7,699	7,760	7,791	6,811	6,482	↑13.0	↑18.8
	돼지고기(삼겹살)	100g	1,891	1,911	1,958	1,927	1,716	↓1.9	↑10.2
	닭고기	1kg	5,030	5,167	5,087	5,295	5,493	↓5.0	↓8.4
	계란(특란)	30개	5,527	5,324	5,449	5,523	5,514	↑0.1	↑0.2
	우유	1리터	2,550	2,550	2,547	2,546	2,384	↑0.2	↑7.0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5. 11. 23.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844 천원	5,900 천원	4,520 천원	↓ 0.9	↑ 29.3
	거세	6,580 "	7,004 "	5,323 "	↓ 6.1	↑ 23.6
송아지 (6~7월)	암	2,519 "	2,599 "	1,851 "	↓ 3.1	↑ 36.1
	수	3,164 "	3,310 "	2,454 "	↓ 4.4	↑ 28.9
육우(600Kg)		3,365 "	3,433 "	3,302 "	↓ 2.0	↑ 1.9
젓소수송아지(7일령)		280 "	296 "	37 "	↓ 5.4	↑ 656.8
돼지(110kg)		372 "	400 "	438 "	↓ 7.0	↓ 15.1
육계(원/kg)		1,391 원	1,321 원	1,790 원	↑ 5.3	↓ 22.3
계란(원/특란10개)		1,109 "	1,113 "	1,432 "	↓ 0.4	↓ 22.6
오리(원/kg)		2,166 "	2,166 "	2,166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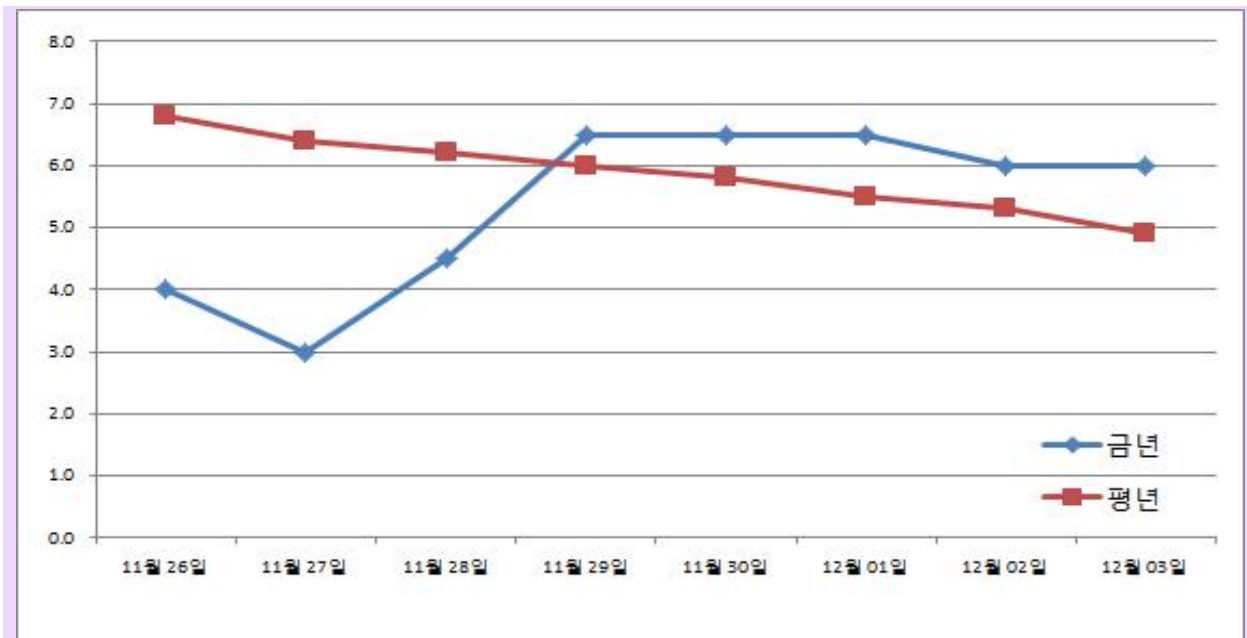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 1. 주간 기상전망

## ■ 기상청 중기예보(광주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5.4	5.9	-0.5	8.6	11.1	-2.5	2.1	1.6	1.0	1.8
11월 26일(목)	4	6.8	-2.8	5	12.1	-7.1	3	2.4	-0.6	1.7
11월 27일(금)	3	6.4	-3.4	5	11.6	-6.6	1	2.2	1.2	2.2
11월 28일(토)	4.5	6.2	-1.7	8	11.3	-3.3	1	2	1	2.2
11월 29일(일)	6.5	6	0.5	10	11.1	-1.1	3	1.7	1.3	2.1
11월 30일(월)	6.5	5.8	0.7	10	11.1	-1.1	3	1.3	1.7	1.6
12월 1일(화)	6.5	5.5	1	11	10.8	0.2	2	1.2	0.8	1.5
12월 2일(수)	6	5.3	0.7	10	10.7	-0.7	2	1	1	1.5
12월 3일(목)	6	4.9	1.1	10	10.3	-0.3	2	0.6	1.4	1.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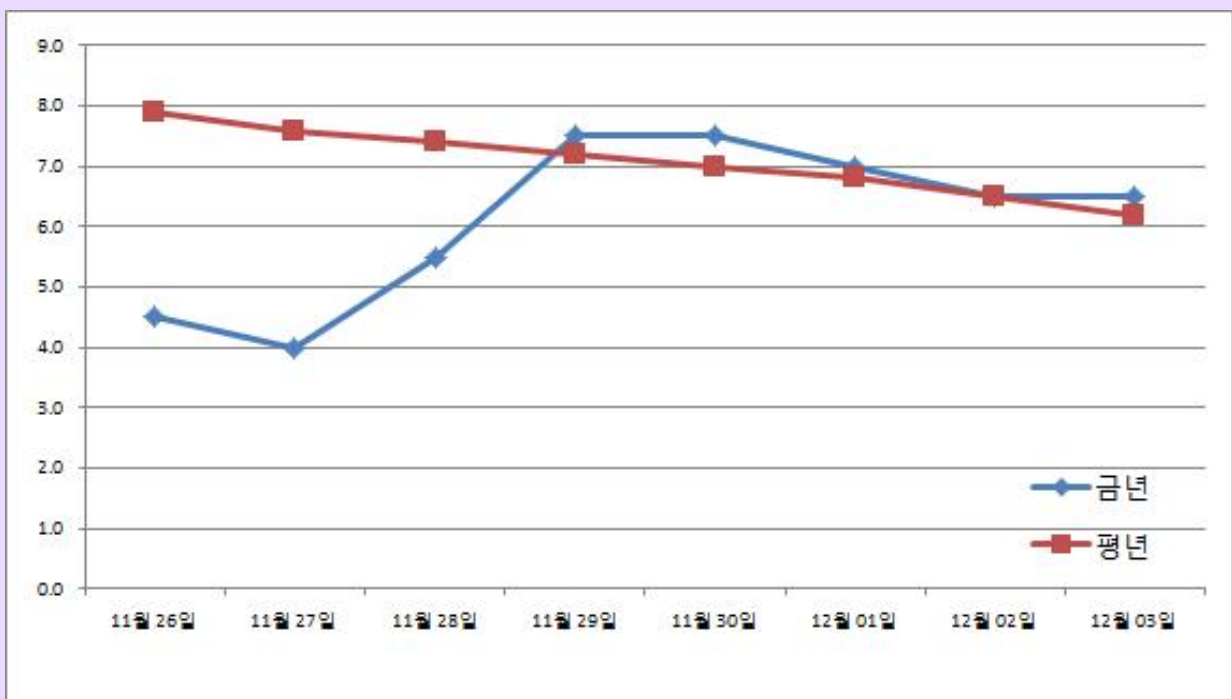


<평균 기온(°C)>

## ■ 기상청 중기예보(목포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6.1	7.1	-1.0	8.9	11.9	-3.0	3.4	3.4	1.0	1.6
11월 26일(목)	4.5	7.9	-3.4	5	12.9	-7.9	4	4.1	0.1	1.7
11월 27일(금)	4	7.6	-3.6	6	12.4	-6.4	2	3.9	1.9	2
11월 28일(토)	5.5	7.4	-1.9	9	12.2	-3.2	2	3.7	1.7	1.8
11월 29일(일)	7.5	7.2	0.3	10	11.9	-1.9	5	3.5	1.5	1.7
11월 30일(월)	7.5	7	0.5	10	11.8	-1.8	5	3.3	1.7	1.2
12월 1일(화)	7	6.8	0.2	11	11.6	-0.6	3	3.1	-0.1	1.2
12월 2일(수)	6.5	6.5	0	10	11.4	-1.4	3	2.8	0.2	1.4
12월 3일(목)	6.5	6.2	0.3	10	11.1	-1.1	3	2.4	0.6	1.4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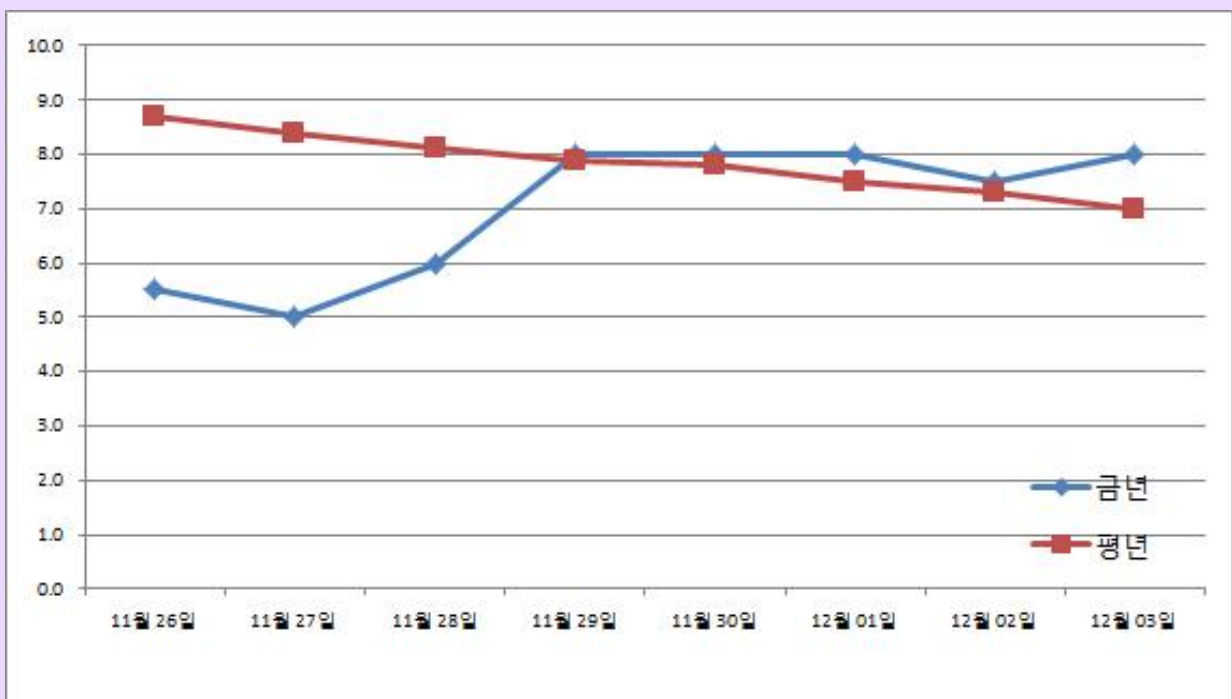
<평균 기온(°C)>



## ■ 기상청 중기예보(여수 기준)

일 별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계)	7.0	7.8	-0.8	9.3	11.7	-2.4	4.8	4.6	1.3	1.3
11월 26일(목)	5.5	8.7	-3.2	6	12.5	-6.5	5	5.4	0.4	1.6
11월 27일(금)	5	8.4	-3.4	7	12.1	-5.1	3	5.1	2.1	2.2
11월 28일(토)	6	8.1	-2.1	9	11.9	-2.9	3	4.9	1.9	1.4
11월 29일(일)	8	7.9	0.1	10	11.7	-1.7	6	4.6	1.4	1.3
11월 30일(월)	8	7.8	0.2	10	11.6	-1.6	6	4.5	1.5	1.1
12월 1일(화)	8	7.5	0.5	11	11.4	-0.4	5	4.3	0.7	1.1
12월 2일(수)	7.5	7.3	0.2	10	11.3	-1.3	5	4	1	0.9
12월 3일(목)	8	7	1	11	11	0	5	3.6	1.4	0.9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평균 기온(°C)>

## 2. 농산물 재배 동향

### 청양계풋고추 · 일반풋고추 재배 동향

- 청양계풋고추,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듯
  - 11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경남 진주에서는 정식시기를 9월로 앞당긴 농가가 많아 작년보다 감소하겠으나, 주 정식지인 경남 밀양과 창원에서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시설재배면적이 다소 증가하여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풋고추, 11~12월 정식면적 작년과 비슷할 듯
  - 11~12월 정식면적은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남 하동과 창녕에서 노동력 감소 등으로 휴경을 하거나 오이맛 고추 등으로 품종 전환하려는 농가가 있으나, 정식비중이 큰 진주에서는 면적 변화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농축산물 출하 및 가격 동향

**과 채** : 딸기·수박

#### ○ ( 딸기 )

- 11월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보다 낮은 상품 2kg 상자에 27,000~30,000원으로 전망
- 출하 초기인 상순에는 작년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겠지만, 이후 기상여건 호조로 생육기간이 단축되면서 출하량이 증가 하여 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

#### ○ ( 수박 )

- 11월 평균도매가격은 출하량이 소폭 증가하고, 사과와 포도, 토마토 등 소비대체품목의 출하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작년 보다 낮은 상품 1kg에 850~950원으로 전망

**엽근채소** : 배추·무

#### ○ ( 배추 )

- 11월 배추 도매가격은 가을배추 출하량 증가로 평년보다 낮은 3,500~4,500원/10kg으로 전망
- 그러나 11월 한파 등에 따른 출하량 감소 및 김장철 배추 소비 증가로 인해 11월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 ( 무 )

- 11월 무 상품 18kg당 가락시장 평균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 및 전월보다 상승한 8,500~10,500원 수준으로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4.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빗가람점 임시개장

-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빗가람점 25일 개장에 앞서 임시개장 -
- 200여 가지 농산물과 90여종 가공식품 등 판매 -
- 나주시는 오는 25일 혁신도시 빗가람동에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빗가람점을 개장한다고 밝혔다.
- 이에 앞서 19일 부터 임시 개장을 통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임시개장은 운영시스템의 점검과 보완을 위한 것이며 이 기간 동안에도 신선한 농산물과 축산물, 가공식품, 제과·제빵류, 반찬류 등도 정상 판매된다.
- 나주시는 지난 4월부터 이번 개장을 준비해왔다. 중간지원조직인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를 나주시 직영조직으로 신설하여 밥상에 필요한 300여 가지의 다양한 품목을 연중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하였다.
-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 직원들이 지난 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100여개 마을을 직접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고, 리더 및 생산자 교육과 선진지로 꼽히는 완주 로컬푸드 현장견학 등을 진행한 끝에 약 300명의 농가가 200여 가지의 농산물을 출하하기로 약정했다.
- 또한 지난 8월부터는 가공식품 업체 조직화를 추진하고 지역 내 소재 업체 중 나주산 주원료를 50% 이상 사용하는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모집해 교육 수료 및 출하 약정을 맺었다. 1~2인 가구 및 도시민의 증가로 인해 가공식품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므로 로컬푸드 역시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에 따라 나주시는 내년부터 로컬푸드 농민가공 지원센터를 설립해

보다 다양한 지역산 가공식품 생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 나주 로컬푸드 직매장 빛가람점은 빛가람중학교와 LH 4단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한다.

\* 출처 : 나주시

## ■ 광양시,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위해 농민과 공무원 머리 맞대!

- 13일 농업발전방안 워크숍 개최, 전문농업인과 농업분야 공무원 110명 참여 -
-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 및 신규사업 발굴 중점 -
- 광양시의 전문농업인과 농업분야 담당공무원들이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 시는 13일 백운산수련관에서 농업인과 공무원 등 1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광양시 농업발전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 워크숍은 국내·외적으로 어려워진 농업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광양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농업분야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특강, 농업관련 건의 및 토론, 분임토의, 농업발전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 강사로 나선 최세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은 농업여건 변화와 미래 농업 육성 방향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녹록치 않은 농업 여건에 미래 성장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과 투자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특히 밭농업이 미래성장산업화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 오후에 진행된 분임토의는 농업분야 매년 100억 원 추가 지원방안, 광양시 농업발전 T/F팀 운영방안, 농업기술센터 기능별 부서 업무 조정, 광양농업의 특화작목 발굴·육성, 전략적 마케팅 추진 방안 등의 주제로 5개조로 나누어 진행됐다.



- 이후 농업발전 토론을 통해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방안과 신규사업 발굴 등에 중점을 두고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
- 정현복 시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농가소득 5천만 원을 달성하고 경쟁력을 갖춘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 농업분야 지원을 확대하고 판로를 개척하겠다고, 농업인 여러분들도 좋은 품질의 농·특산품을 생산하는 등 서로가 역할을 잘 분담하여 힘을 한데 모아 나간다면 광양 농업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광양시

## ■ 차세대 슈퍼푸드 히카마(멕시코 감자) 담양에서 날개 달다.

- 시범사업으로 농가 확대 보급, 농가소득 증대 기대 -

- 담양군은 기후변화 대체작목으로 주목받고 있는 ‘히카마’를 신소득 전략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농업기술센터의 실증시험포장과 평야지, 산간지 등 4개소에서 지역적응시험을 통해 재배가 가능성이 입증되어 올해 농가에 보급, 10여농가에서 2ha 재배하여 로컬푸드, 주요관광지, 관내 주요식당 등에서 판매중이다.
- 미국 허핑턴포스트가 2012년 선정한 ‘세계 20대 건강식품’에 이름을 올린 히카마는 얇빈 또는 멕시코감자라고도 하며, 천연 인슐린이라 불리는 이눌린 성분이 들어 있어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고 섬유질이 풍부하면서 열량이 100g당 35~45kcal로 칼로리가 낮아서 다이어트와 변비, 피부미용 등에도 효과적인 식품으로 알려졌다.
- 또한, 히카마의 식용부분인 뿌리는 생식과 샐러드, 깍두기, 채김치, 물김치, 육회, 조림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으며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맛으로 소비시장은 계속 확대될 전망이다.
- 장풍환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히카마는 마·무·배 등이 어우러진

맛의 뿌리채소로 노지에서 키워도 병해충이 들지 않고 비료나 농약사용을 하지 않아도 재배가 가능하다"며 "친환경농업을 선도하는 담양에서 재배하기 좋은 품종으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한편, 히카마는 4월 중순 육묘에 이어 5월 하순 정식에 이뤄지며, 10월 중순부터 수확한다. \* 출처 : 담양군

## ■ 구례 농·특산물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에서 입상

-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가 주관한 제 24 회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행사에서 (사)한국농업경영인 구례군연합회(회장 최정범)에서 출품한 구례 농·특산물이 농협중앙회장상(채소류), 한농연 중앙회장상(특별 가공류)을 수상하는 등 구례 농·특산물의 가치를 입증하고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성과를 거뒀다.
- 이번 행사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농협 성남농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 지역에서 농업 경영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평가를 통하여 생산자를 격려하고 품평회를 통해 농산물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된 전국적인 인지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농산물 품평회다.
- 구례군(군수 서기동) 관계자는 "일년간 땀흘려 직접 생산한 구례 농·특산물이 좋은 평가를 받아 생산자를 격려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좋은 품질의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지속적으로 우수성을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 출처 : 구례군

##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 담양군, 대숲맑은 유기농 쌀 & 전통식품 미국 첫 수출길 열었다!

- 담양 농식품 미국 LA와 뉴욕 한인 마켓 우선 공략한다. -

- 담양군이 전략적인 시장개척을 통해 LA와 뉴욕으로 지역대표 브랜드 쌀인 대숲맑은 담양 쌀과 식품명인의 전통식품 40피트를 (5만달러) 첫 수출 한다.
- 이와 관련 군과 금성농협은 지난 20일, 최형식 담양군수를 비롯한 운영선 담양군의회의장, 추연욱 부의장, 김영석 NH농협은행담양군 지부장, 양용호 금성농협조합장, 정원실 창평농협조합장, 윤석만 담양군농업경영인회장, 이문태 담양농민회회장 및 전통식품명인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수출길에 오른 대숲맑은 담양 농식품에 대한 컨테이너 봉인식을 가졌다.
- 이번 수출길에 오른 대숲맑은 담양 유기농쌀과 전통식품은 부산항을 통해 12월 4일 LA항에 도착하게 되며 12월18일부터 미국 H매장에서 판매된다.
- 특히, 대숲맑은 담양 쌀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소비자 단체가 선정한 대한민국 1등쌀로 국내에서는 그 품위와 식미를 인정 받았으며, 전통식품 또한 대한민국 식품명인 35호 기순도 명인과, 60호 안복자 명인이 생산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식품으로 세계인의 입맛을 매료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제품이다.
- 이에 최형식 담양군수는 “쌀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담양 유기농쌀이 미국 시장으로 진출하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앞으로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 프리미엄 쌀을 소포장 고급화

하여 중국 내 고소득층을 공략 할 것”이며,

- “FTA 등 불안한 농업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품성과 안전성을 갖춘 친환경농산물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고, 부가가치가 높은 농식품 가공산업을 집중 육성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꾀함으로 농가 소득과 직결 되도록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 출처 : 담양군

## ■ “보성 참다래, 미국 수출길 올랐다”

-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참다래(제시골드) 세계시장 진출 -

- 지난 18일 보성 참다래가 지난해 홍콩,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미국 수출길에 올랐다.
- 이날 별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는 별교친환경참다래영농조합법인(대표 김수옥)으로부터 수출상품을 공급받아 초도물량인 20톤의 미국 수출 상차식을 가졌다.
- 군 관계자에 따르면 별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 미국의 대형 유통업체인 H마트와 100톤(5억원) 수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성 참다래 대규모 수출계약 건은 10여년만의 일이다.
- 또한 NH무역은 미국 동부지역 H마트에서 마켓테스트를 거쳐 현지 반응이 좋으면 수출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군 관계자는 “작년부터 관내 참다래 재배농가로부터 수출 가능성에 대한 검토 요청을 받은 직후 바로 수출이 성사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농정의 요구사항을 발 빠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참다래는 국내에서 연간 2만톤 이상이 생산되고 있으며, 최근

에는 재배지역이 남해안에서 제주도로 확대되는 등 생산량이 점차 늘고 있다. 생산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서 농가 소득보장을 위해 해외시장 개척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이에 따라 벌교농협산지유통센터에서는 뉴질랜드 키위의 수입이 종료되는 12월부터 약 3개월간의 틈새시장이 있음을 파악하고, NH무역와 함께 미국 시장개척을 추진했다.
- 한편 보성군에서는 보성군산지유통종합계획에 따라 2015년도 공동출하실적 100억원을 목표로 산지유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보성군

## ■ 한국식품 중국시장 찾아 베이징, 칭다오 동시 붐업

- (베이징) 「2015 베이징식품 박람회」 참가 -
- (칭다오) 중국해양대학 캠퍼스 소비자 체험 행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세계 최대 식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시장에 한국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11월 18일부터 20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2015 제2회 베이징 식품박람회 (World of Food Beijing 2015)」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 올해 2회째인 베이징 식품박람회는 상하이 SIAL박람회와 함께 중국 최대 식품박람회로 평가받고 있으며, 쾰른(ANUGA) 식품박람회의 주최사인 쾰른메세(Koelnmesse)와 중국총상회가 공동주최한다.

□ 이번 베이징 식품박람회에는 34개 국내식품업체가 참가하여 쌀가공 식품, 면류, 스낵, 음료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식품 뿐 아니라 간편식, 유아용 식품, 건강식품 등 최신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인다.



※ 참가업체(34개) : 건강식품(5), 스낵(5), 음료(6), 간편식(5), 소스류(2), 차류(3), 수산물(2), 김치(2), 면류(2), 신선(1), 주류(1)

○ 수출상담회는 주최사인 켈른메세(Koelnmesse)와 협력하여 중국 내 대표적인 온라인·소매·식자재 바이어들과 우리식품업체간 1:1 매칭으로 이루어진다.

○ 수출상담회와 더불어 참가제품 전시 및 시음, 김치·삼계탕·쌀·장류 특별 홍보관 운영을 통해 한국식품의 우수성과 다양성을 식품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 한편, 칭다오 중국해양대학에서는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칭다오의 젊은 소비층을 공략하기 위한 K-FOOD 캠퍼스 프로젝트 행사가 진행되었다.

○ 학생식당 앞 광장에 김치홍보관(김치 담그기 체험), 유제품홍보관(과즙우유 등), 전통차홍보관(유자차 등), 한류음식체험관(떡볶이, 만두, 라면 등), 미니마트체험관(스낵류, 음료류, 아이스크림 등),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칭다오의 젊은 소비층에게 다양한 한국식품을 알렸다.

□ 농림축산식품부 수출진흥과장은 “중국은 한국식품의 제2 수출시장으로 전반적인 수출 둔화 양상에도 불구하고, '15. 10월말 기준 대중농식품 수출은 868백만불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면서, “향후 對중국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중국 동북연안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 내륙시장 및 온라인·모바일 식품 시장 등으로 진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 FTA 전남 농·축산 해법은 ‘저비용 고부가가치농업’

- 연구용역...수출전문단지·친환경농업 내실·선도농업인 육성 등 8대 과제 제시 -
- 이지사, “전남도만의 맞춤형 대응전략 필요” -
- 한중 FTA에 대비해 전남 농·축산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수출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내실화, 선도농업인 육성 등을 통해 저비용 고부가가치농업을 정착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 전라남도는 18일 한중 FTA 타결 등에 따라 직간접 피해가 우려되는 농축산분야 종합적인 영향분석과 중장기 농업경쟁력 제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보고회에서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04년 발효된 한칠레 FTA부터 시작해 2014년 중국베트남까지 52개 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입액의 80%를 이들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하게 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FTA 효과가 가속화될 경우, 축산농가 수 감소와 수입산 과일류의 수입량 증가로 축산·과수분야의 자금률은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고, 다대기 등 양념류 가공품 수입으로 전남지역 양념채소류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 이에 따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FTA에 대응해 저비용 고부가가치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를 위해 쌀과 노지채소는 농가 조직화와 기반 정비를 통한 기계화 등으로 생산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며, 단위 면적당 소득수준이 높은 시설농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특히 고소득 농업 실현을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해 농업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수출농업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해야 농가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 또한 저비용 고품가가치농업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과제로 수출전문단지 조성, 친환경농업 내실화, 밭농업 활성화, 들녘경영체 육성, 6차산업화 및 식품산업 육성, 동물복지 축산물 브랜드화 및 가축방역 선진화, 농산물 유통 활성화, 청년 농업창업 지원 및 농업인 현장학습 체계 구축 등 8가지를 제시했다.
- 이낙연 전라남도지사는 “FTA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에 연구용역을 의뢰한 것은 두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는 가장 거대한 생산국이자, 소비시장인 중국과의 FTA 발효가 임박해 시기적으로 절박한 이유가 있고 둘째는 전국적인 측면에서 FTA대응전략은 있지만 우리도만의 맞춤형 대응전략의 필요성이 절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이지사는 따라서 “이번 연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실현 가능한 정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출처 : 전라남도

## ■ 누에·뽕나무 새 품종에 이름을 붙여 줘~!

- 새로 개발한 누에와 뽕나무에 예쁜 이름 붙여주세요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11월 24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누에와 뽕나무 새 품종에 붙일 이름을 공모한다.
- 이번에 이름을 공모하는 누에 품종은 애벌레 때는 반달무늬 존재 여부와 고치를 지은 후에는 고치색에 따라 암수 감별이 가능한 품종으로, 구분된 암수를 각각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 뽕나무 품종은 오디 생산 시 가장 문제가 되는 오디균핵병에 비교적 강한 저항성을 갖고 있고 자연재해에 강한 품종으로, 오디 안정 생산에 도움이 되는 품종이다.
-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품종의 특성을 잘 표현 하면서 기억하기 쉬운 이름을 지어 농촌진흥청 페이스북([www.facebook.com/rdakorea](http://www.facebook.com/rdakorea))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 응모작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6건에 대해 감사양봉 산물 제품을 부상으로 수여한다.
- 또, 참가자를 대상으로 20건의 행운상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감사양봉소재과 김종길 과장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는 데 10년 이상의 노력과 시간이 걸렸다.”라며, “이번에 개발한 누에와 뽕나무 새 품종에 국민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담긴 예쁜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감귤 유기재배 매뉴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

- 감귤 유기농 농산물 재배 매뉴얼 농가 보급에 나서 -

-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최근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에 따라 유기농 감귤 재배 지침서를 만들고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 최근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안전성이 농산물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가 되면서 소비자들의 유기농 농산물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 또한,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감귤 또한 그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 감귤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농가에서 손쉽게 유기농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유기재배 매뉴얼이 필요하다.
- 이에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에서는 유기농 제품의 표준화를 위해 감귤 유기재배 매뉴얼을 설정해 농가 보급에 나선다.
- 감귤 유기재배 매뉴얼은 시비법 및 녹비작물 이용기술, 그리고 주요 원소의 생리장해의 증상 및 대책, 주요 원소의 생리장해와 대책 등 유기재배에 필요한 양분을 관리하는 주요 기술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기술을 소개하고 있다.
- 또한, 생물학적 방제법 소개 및 주요 병해충의 관리기술, 주요 유기농 자재 의 방제 효과 및 제조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다.
- 양분 관리 분야와 병해충 관리 분야의 요약 매뉴얼을 작성해 누구나 쉽게 유기농 감귤을 재배할 수 있게 했다.



- 현재 유기농 재배 감귤은 일반 감귤에 비해 가격과 품질이 천차만별이고 그 기준도 애매모호한 실정이다.
- 새롭게 만든 유기재배 매뉴얼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생산 체계를 확립한다면, 소비자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 감귤 유기농 재배 매뉴얼은 제주농업기술원 및 각 기술센터, 친환경 감귤 재배 연합회를 통해 보급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 감귤연구소 황록연 연구사는 “유기 재배 기술에 관한 연구는 각 지역, 각 품종에 따라 더욱 자세히 이루어져야 하며 매뉴얼을 적용할 시 기본 원리 및 상황을 파악하고 자기 과원에 적합한 기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전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 포도나무 박피 노동력 85% 절감 '환상박피기' 개발

-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차선세) 포도연구소는 포도 품질향상 연구사업으로 개발한 “박피 깊이 조절 기능이 있는 환상박피” 기술을 11월 19일(목) 포도연구소에서 (주)화신금속공업과 통상 실시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새로 개발한 포도 환상박피기는 포도나무의 수세조절뿐만 아니라 착색촉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인정되었다. 특히 U자와 1자형 칼날로 각도와 깊이를 조절하여 포도나무뿐만 아니라 사과 일반대목, 감, 대추, 감귤, 옷 등에도 범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박피작업의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포도나무의 박피는 낫, 접도, 톱 등을 이용하여 나무줄기의 껍질-체관-형성층까지 환상박피를

한다. 이 관행방법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개선한 것이 이번에 포도연구소에서 개발한 환상박피기이다.

○ 이번 통상실시 계약 체결로 포도재배 농가에 신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상품성 향상에 따른 소득 증대와 노동력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농가에서 관행으로 사용하는 낫과 비교하면 85%의 노동력 절감 효과가 있으며, 상품성 향상에 따른 판매가 상승은 연간 10a당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면 연간 440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품 생산에 의한 산업화 효과는 5억원 정도이다.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포도연구소 이석호 환경이용팀장은 “연구사업에서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술은 학술논문뿐만 아니라 실용화까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FTA 추진에 의한 개방 확대로 포도 수입량과 판매 비중 증가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포도재배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환상박피 : 과수 원줄기 양분통로를 일시적으로 끊기 위해 고리 모양으로 벗겨내는 것으로 광합성 산물인 탄수화물이 박피부위 위쪽에 축적되어 세력 조절과 착색촉진 효과가 있음.

\* 출처 : 충청북도농업기술원

## ■ 과수원도 겨울 준비!

- 날씨 추워지기 전에 기계유유제 등 약제 준비하는 것이 좋아 -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강양수)은 겨울 추위에 대비하여 시설 재배작물뿐만 아니라 수확이 끝난 과수원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고 있다.

- 대부분의 과일 재배 농가에서는 과실 생육과 수확시기인 여름부터 가을철에 집중적으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과실 수확 후, 또는 동절기에는 병해충 방제 작업에 소홀한 면이 있다. 특히 도내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 단감과 배, 사과 등의 가지 전정 작업과 기계유유제, 석회유황합제 준비는 내년 농사를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어서, 과수 재배농가에서는 잊지 말고 챙겨야 한다고 농업기술원은 강조했다.
-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겨울철 과수원의 약제처리 효과는 반점 낙엽병의 경우, 약제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는 12.3%가 발생하는 반면, 약제처리를 했을 때는 7.1%로 낮아졌으며, 배와 복숭아나 무에 발생하는 응애류도 기계유유제 살포로 거의 방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이듬해 농사를 위한 겨울철 약제처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또한 단감나무에 많이 발생하는 둥근무늬낙엽병 등 곰팡이성병 피해를 입었던 나무의 낙엽이나 피해가지는 병원균 포자가 남아서 월동 후 다른 나무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한데 모아서 태워야 한다. 그리고 기계유유제와 석회유황합제는 날씨가 더 추워지기 전에, 요즘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은데, 기계유유제는 내년 2월 중하순에, 석회유황합제는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경에 각각 처리하여야 한다.
- 수확이 끝난 과수원의 땅심 높이기 작업은 이듬해 생산될 과실의 수량과 품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므로 땅이 완전히 얼기 전에 깊이갈이와 과종별 전용복비, 퇴비, 석회 등을 토질여건에 따라 적절히 살포해서 지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 도 농업기술원은 과일 수확이 끝난 과수원은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월동대책을 마련해 두어야 하고, 시기에 알맞은 작업과 처리를 통해 품질을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출처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 ■ 비닐하우스 새는 열 잡는다.

- 경기도농업기술원(원장 임재욱)은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한 농가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도입했다고 20일 밝혔다.
- 도 농기원이 도입한 열화상카메라 에너지 컨설팅은 농가 시설 하우스 등을 대상으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열 손실 부분을 찾아내고 보온 방법 등을 조언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도 농기원에 따르면 겨울철 난방비는 농가경영비의 30~40%를 차지하고 있어 농가들은 다겹 보온커튼, 보온 덮개, 소형보온터널 등 설치해 에너지 손실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시설 노후화, 파손, 시공불량 등으로 인해 난방열이 새는 곳이 있다.
- 도 농기원은 희망하는 시군에 도 농기원이 보유한 열화상카메라를 대여하여 열효율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절감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 에너지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가까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도 농기원은 이와 함께 시설하우스 열손실을 막기 위한 방법을 조언했다. 열손실을 줄이려면 1중 피복보다 2중 피복재를 설치해 보온력을 높이고, 열손실이 취약한 부분에 다겹 보온재나 피복재를 사용하여 틈새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
- 시설하우스 내 열손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은 유리온실 내부 지붕

환기창과 측면이 맞닿은 부위, 유리온실 둘레의 하부 콘크리트면, 시설하우스 수평보온커튼과 수직보온커튼이 맞닿은 부분의 틈새, 측창 아래쪽, 출입구 틈 등이다.

- 겨울철 피복재 1겹과 보온커튼 1겹을 사용한 비닐하우스는 커튼 면적의 0.6%의 작은 틈새만 막아도 약 12%의 열손실을 줄일 수 있다.
- 한편, 도 농기원은 19일 이천시 신둔면 농가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현장 시연회를 가졌다.

\* 출처 : 경기도농업기술원

## ■ 우리 지역에 알맞은 찰기장 품종 선발

- 10a당 280kg까지 수확 가능/ 늦어지면 40~60%까지 감소 우려 -

- 기장은 인류가 최초로 재배하기 시작한 식량작물 중의 하나이다. 기장은 벼, 수수, 조와 같은 벼과에 속하는 작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생육하는 특징이 있다. 기장은 부여에서 식용으로 이용하였으며, 조선시대에는 오곡의 하나로 술, 떡 등으로 널리 이용된 중요한 작물이었다.
- 기장은 불포화지방산, 베타글루칸 함량이 많아 면역기능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 최근 들어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많아지면서 혼반용 및 가공용으로 소비가 확산되고 있다.
-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라북도지역에 재배가 용이한 우량품종과 파종 시기를 구명하였는데 가장 적합한 다수성 품종은 황실찰기장과 이백찰기장으로 10a당 280kg의 수량성을 보였고, 적정한 파종시기를 구명한 결과 6월 상순~ 6월 하순까지 파종하는 것이 가장 수량성이



높았고, 너무 이르거나(5월) 늦으면(7월) 수량이 크게 감소한다. 특히 7월 하순에 파종하면 40~60%까지 수량이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기장을 심는 방법은 씨를 뿌리거나 묘로 길러서 심는 방법이 있고. 농업현장의 여건에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씨를 뿌리는 방법은 60×10cm 간격으로 심거나, 10a당 1kg정도를 흩어 뿌림할 수 있다. 묘를 길러 심을 경우에는 육묘용 트레이에 2개체씩 파종하여 3주 정도 육묘하여 뿌리가 잘 컸을 때 옮겨 심으면 된다.
- 농업기술원 관계자에 따르면 “기장은 6월 상순~하순에 파종하면 8월 하순까지는 수확할 수 있고, 재배기간이 아주 짧기 때문에 뒷그루 작물을 여유 있게 심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일시에 많은 비가 오거나 태풍이 지나갈 때 쓰러짐 현상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를 세우거나 바람 피해가 적은 지역을 선택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출처 : 전라북도농업기술원

## 7. 정책 동향

### ◆ 영암 모인팜스 손모아 대표 제2회 미래농업스타상 수상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유통마케팅 분야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최경주)에서 추천한 손모아(모인팜스) 대표는 11.17.(화)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조치원청사에서 제2회 유통마케팅 분야 미래농업스타상을 수상하였다고 밝혔다.
- 농업기술원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받아 이를 활용한 모인팜스 상품상세페이지를 만들어 건무청 시래기를 유통판매하는 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직거래 비율을 높이고 국내외 간편식 시장진출을 위한 누룽지 등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여 창조농업활성화에 공헌하여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 농업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농업 분야에 더 많은 젊은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미래농업스타상에 손모아 대표가 선정된 것은 귀농 4년차로 본인의 꾸준한 노력과 함께 교육과 체험들을 통해 창조농업을 실천하여 몸은 힘들지만 마음속에는 늘 희망과 행복을 노래하는 긍정적·도전적 자세를 인정받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젊은이로 수상한 것이 아닌가 싶다.
- 현재도 손모아 대표는 농업기술원 전남생명농업대학 청년리더반에 다니고 있으며, 꾸준한 교육을 통한 자기개발과 현시대의 사업의 키워드인 “가치와 공유”를 실천해나가는 젊은 농군이자 사업가인 그에게 이번 수상이 또 하나의 인생의 모멘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용호 농업교육과장은 “이번 미래농업스타상을 수상한 손모아 대표를 농업인 교육 시 강사로 적극 활용하고 농업에 도전하고 시작하려는 귀농인들에게도 희망을 심어주고 제2, 제3의 미래농업스타를 키워가는 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

## ◆ 전남 조사료 전국 최고 품질 입증

- 품질경연서 강진 경영체 최우수영암 법인 특별상 수상 -
- 전라남도는 농축산식품부의 2015년 ‘전국 사료작물 품질경연대회’에서 전남지역 경영체들이 최우수상과 특별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산 조사료가 전국 최고 명품임을 입증했다고 21일 밝혔다.
- 이번 경연에서 강진 조사료 경영체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대표 김강민)의 이탈리아라이그라스(IRG)는 최우수상인 농축산식품부장관상을, 영암 송림축산영농조합법인(정옥복)은 특별상을 각각 수상했다.

\*\* 강진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대표 김강민) 조사료 재배 우수 사례

- 생산 : 이탈리아라이그라스 380ha를 적기에 벼가 서있는 상태에서 파종(9.10.~9.30.), 맞춤형 비료 시비 및 동사방지와 생산량 증대 위해 눌러주기 실시
- 품질관리 : 5월 상순에 수확하여 3~5일간 건조하여 수분을 50%정도 유지, 매년 3~4회 조사료 관련 교육 이수 및 생산자 실명제 실시하는 등 철저한 품질관리
- 한우 사육두수 : 150두

- 조사료 품질경연대회는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생산한 청보리, 이탈리아라이그라스, 호밀, 총채보리 등 국내산 사료작물의 품질을 평가하는 대회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한국초지조사료학회 공동으로 주최한다.
- 대회 7년째를 맞은 올해는 전국 조사료 경영체에서 28점(전남 7점)의 사일리지가 출품돼 조사료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를 통해 선발됐다.
- 전라남도는 조사료 급여 확대를 통한 소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국비 300억 원을 포함 1천 38억 원을 들여 전국 조사료 재배 면적의 44%인 6만 5천ha의 원활한 생산을 위해 기계장비, 조사료 제조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100ha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전문단지로 지정해 기계장비 등을 일반단지보다 국비 10% 이상 더 지원하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고 있다.
- 전라남도는 또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와 함께 품질 관리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조사료 사일리지에 생산자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조사료 품질평가 검사를 통한 객관적인 조사료 평가를 실시해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영체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 권두석 전라남도 축산과장은 “조사료 생산은 단순한 소 생산비 절감뿐 만 아니라, 농촌의 대체 소득원 및 경관 보존, 수입 조사료 대체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각 농가에서는 재배 면적 확대와 함께 철저한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조사료를 생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전라남도

## ◆ 우수관리 농산물(GAP) 가까운 올가홀푸드 매장에서!

- 농식품부-(주)올가홀푸드 GAP 농산물 취급확대 업무협약 체결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우수관리(GAP) 농산물의 소비자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올가홀푸드(대표 남제안)와 GAP (농산물 우수관리) 농산물 취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올가홀푸드는 '15년 11월 현재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6개 품목\*을 전국 94개 매장에서 진열·판매 중이며, '17년까지 25개 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 6개 품목: 과일 5(사과·배·포도·자두·감귤), 채소 1(수박)

\*\* 25개 품목: 과일 9(사과·배·포도·자두·감귤 등), 채소 12(수박·표고·쌈채소 등), 양곡 4(맷쌀·찹쌀·기장·수수)

○ 향후 유통 매장 내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을 병행 추진하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안전성이 강화된 농산물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을 통해 농식품부는 GAP(농산물 우수관리) 확대를 위해 올가홀푸드로 납품하는 농가들의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교육, 산지 컨설팅, 안전성 분석 등을 지원한다.

○ 아울러 올가홀푸드와 함께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생산자의 안전성 및 이력 정보를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앱(APP) 개발 및 적용에 대해 상호 협조할 예정이다.

○ 업무협약식은 11월 20일(금) 올가홀푸드 본사(방이점)에서 체결



하며, 농식품부 허태웅 국장, (주)올가홀푸드 남제안 대표이사가 참석한다.

- 농식품부 허태웅 국장은 “그동안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GAP(농산물 우수관리) 농산물 판매매장이 부족하다는 것이 GAP(농산물 우수관리) 확산을 걸림돌 중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 “이번 협약을 통해 가까운 올가홀푸드 매장에서 GAP(농산물 우수관리) 농산물을 친숙하게 접할 수 있어 편의성과 인지도가 높아지고, GAP(농산물 우수관리)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은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 한·중 구제역 공동대응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우리나라 구제역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구제역 발생과 백신 등에 관한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를 강화하고자 2015년 11월 18일 중국 란저우 수의연구소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중국 란저우 수의연구소는 구제역 국제동물보건기구(OIE) 표준연구실로 지정된 곳이며, 검역본부는 5개의 OIE 표준연구실을 보유함(부루셀라병, 뉴캐슬병, 일본뇌염, 광견병, 사슴만성소모성질병)

- 이번 MOU 체결은 지난 2014년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한·중 정상회담 시 양국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중대한 동물 질병의 예방과 연구 분야에 있어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한 것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4년 11월에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중국동물보건역학센터 (China Animal Health and Epidemiology Center)와 하얼빈 수의연구소 (Harbin Veterinary Research Institute) 등 2개 담당기관과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한 바 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관계자는 “이번 중국정부와 가축질병분야에 있어 양 국가 간 협력에 관한 MOU 체결을 통해, 구제역에 관한 공동연구 및 양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의 교환으로 보다 효율적인 구제역 방역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8. 해외 농업정보

### ◆ 브라질 주요 대두 생산지역 파종 가속화

- 브라질의 주요 대두 생산지역 Mato Grosso는 지난주 내린 비 이후로 대두 파종을 지난 해와 같은 수준으로 진행한다고 주립 농업 연구원 Imea는 전했다. 브라질 대두 생산의 약 1/3을 담당하는 Mato Grosso주의 파종은 현재 83.7%가 완료되었고, 이중 23%p가 지난 주 완료된 것이라 덧붙였다. AgRural의 애널리스트들의 보고에 의하면 브라질 전국적으로 약 60%가 파종이 완료되었고, 지난주 47%보다는 상승하기는 하였으나 5년 평균 71%에 비해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파종 지연이 곡물 수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요소는 아니지만 농가에게 있어 대두 수확이후 다음 곡물 파종(이른테면 옥수수) 기회가 줄어들게 된다.
- Mato Grosso지역에 일찍이 파종된 대두들 또한 10월 내내 지속됐던 건조한 기후의 영향으로 재파종이 고려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브라질의 대두생산협회의 기술이사 Nery Ribas는 재파종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며, 아직 진행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
- 로이터 기상은 10월 말 Mato Grosso의 북부지역 토양 수분상태가 상당히 메말랐고, 최근 5년 내 최악이며 평균보다 더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 Somar의 기상학자에 따르면 지난 주에 걸쳐 일부 지역 비가 내리긴 하였으나, 이후 5일간은 화창하고 더운 날씨를 전망하였다. 브라질 중서부지역에 건조한 기후가 우려된 반면, 극동 지역의 대두 생산 지역은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려 Rio Grande do Sul지역은 곰팡이가 우려된다고 전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 미국 겨울 밀 등급 개선 전망

- USDA는 주간 곡물 보고서를 통해 미국 겨울밀 등급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미국 겨울 밀 등급의 평균 예상은 양호 및 우수 등급이 52%로 USDA의 일주일 전에 전망했던 51% 보다 1%p 높은 수준이다. 양호 및 우수등급 예상 범위는 50~53% 안팎이다. 겨울 밀 파종 과정에 대해 6명의 애널리스트들은 95.5%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고, 이는 11월 8일 USDA가 보고했던 92%보다 높다.
- 옥수수 수확 상황에 대해 7명의 애널리스트들은 96.6%가 완료된 것으로 추정했고, 지난주 USDA가 보고한 93%보다 높다. 대두의 경우 11월 8일 보고에 의하면 약 95%가 완료 되었고, 정부의 추가적인 보고는 아직 계획되어 있지 않다. USDA는 주간 곡물 진행 및 등급 상황 보고를 수일 내에 계획하고 있다.

(단위 : %)

	평균	범위	지난 주
옥수수 수확 과정	96.6	96-97	93
겨울 밀 파종 과정	95.5	94-97	92
겨울 밀 양호 및 우수 등급	52	50-53	51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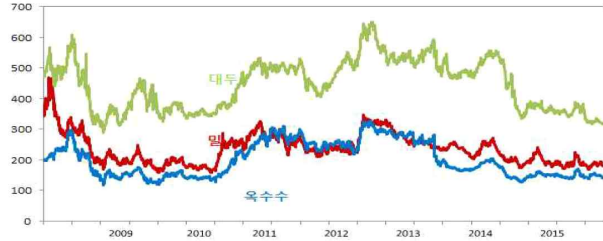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5. 11. 23.(시카고 선물거래소)

## 우호 기후 탓에 주요 곡물 가격 하락

시카고선물거래소의 곡물선물가격

구분	기준일 ('15.11.20)	전일대비	전월평균 ('15.10)	2014 평균
밀	179.45	▼0.4%	186	216
옥수수	142.99	▼0.3%	151	164
대두	315.04	▼0.3%	327	455

주) 시카고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밀(적색연질밀: SRW), 옥수수, 대두의 근월물(밀, 옥수수: 12월물, 대두: 16년 1월물) 정산가격임.



### 밀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밀 선물가격은 미국 평원과 중서부지역 우호기후 탓에 하락 마감함. 이미 전세계적인 풍작 상태에 수확이 더할 것으로 보여 하방 압력을 더욱 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예상보다 많은 수출 수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혼조세가 예상된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



미국산 옥수수 선물가격은 남미 기후가 작황에 우호적으로 개선되는 탓에 하락함.

### 대두 선물시장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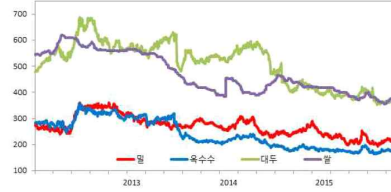


미국산 대두 선물가격은 남미지역 건조했던 기후가 비로 인해 개선되고, 전 세계적 풍작 상황들로 인해 하락함. 확인되지 않은 목적지에 12만 톤의 미국산 대두가 수출된 것으로 USDA는 보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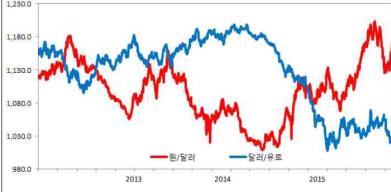
### 관련동향

- CIF 바지사선적 비용 감소 및 공급 과잉으로 대두 가격 하락세
- 국제유가는 미국 원유 시추기 수 감소, ECB 총재 추가 경기부양책 시사 발언 등의 영향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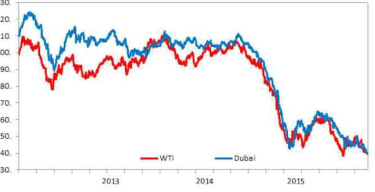
### 곡물 수출가격 (FOB)



### 환율



### 국제유가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구분	기준일	전일대비		
						곡물수출가격 (FOB)	밀
	옥수수	171	▲0.6%		달러/유로	1.0732	▲0.8%
	대두	346	-	국제유가 (US\$/B)	WTI	40.39	▼0.4%
	쌀	365	-		Dubai	40.07	▼0.1%

주 1) 밀(US SRW Gulf), 옥수수(US 3YC Gulf), 대두(US Gulf), 쌀(Thailand 100% Grande B), WTI(12월물), Dubai(현물)

2) 기준일은 '15.11.19(수출가격), '15.11.20(환율), '15.11.20(국제유가)이며 자료출처(국제곡물이사회, 한국은행, 한국석유공사)의 업데이트 날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수확기 쌀 시장 안정,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장격리**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는 기존에 매입해 오던 공공비축미(36만톤)와 해외공여용 쌀(3만톤)에 더해 20만톤의 쌀을 추가로 시장에서 격리하여 총 59만톤을 매입

\* 공공비축 우선지급금을 작년 수준인 52000원/40kg(조곡기준)으로 지급

**민간매입 확대** 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민간의 벼 매입자금으로 총 3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농신보의 RPC 보증한도를 3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는 등 쌀 유통업체들의 매입량 확대를 위한 조치를 시행

\* '15.11.12 기준 민간 매입량은 178만톤으로 작년 동기 154만톤에 비해 15% 많은 수준

**수입쌀 관리** 쌀 시장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는 수입된 밥쌀용 쌀의 판매 물량과 횟수를 축소하고, 연말까지 쌀의 혼합 금지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

\* 월평균 밥쌀용 쌀 판매물량 : (9월) 8천톤 → (10월) 6 → (11월) 4 → (12월) 1

\* 밥쌀용 쌀 판매 횟수 : (~10월) 주 3회 → (11월) 주 2회 → (12월) 주 1회

**쌀 재고 대책** 가공용·주정용 쌀 공급 확대, 쌀 및 쌀 가공식품 수출 활성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용 '나라이미' 공급 확대 등

\* 가공용·주정용 공급 확대 : ('14) 29만톤 → ('15) 37 → ('16) 61

### 밥쌀 수입, 사실은 이렇습니다.

#### 쌀 관세화

- 쌀을 수입할 때 내는 관세의 수준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14.9.30)하였으며, 현재 해당 내용에 대한 WTO 검증과정에 있음
- 관세화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두 번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약속한 40만 9천톤의 쌀을 매년 수입해야 하지만 더 이상 저율관세로 의무수입량을 늘리지 않아도 됨

\* 쌀 의무수입물량 :

( '95) 51천톤 → ( '04) 205 → ( '14 이후) 409 (국내 소비량의 9% 수준)

#### 밥쌀 수입

- 국산쌀과 달리 수입쌀(40만 9천톤)에 대해서만 용도를 제한하여 가공용쌀만 수입·판매하는 것은 WTO 규범 위반 등 통상 분쟁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쌀의 일부를 밥쌀용으로 수입하는 것이 불가피함
- 수입쌀이 들어오더라도 정부는 국내 수급·가격, 재고량 등 여러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수입쌀의 판매 시기와 물량을 조절하여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음

### 쌀 농가 소득, 이렇게 보장됩니다.

- '05년 추곡수매제 폐지 이후 식량안보 기능은 공공비축제로, 소득안정 기능은 쌀소득보전직불제로 개편하였음

#### 공공비축제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위기에 대비하여 정부가 일정량의 쌀을 농가로부터 미리 사서 관리하는 제도로, '05년 이후 매년 36~37만톤의 쌀을 공공비축용으로, '14년부터는 아세안 국가 원조용으로 3만톤을 추가 매입하고 있음

\* ('15) 공공비축 매입물량 39만톤

#### 쌀소득보전직불제

- 쌀값이 떨어지더라도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188000원/80kg)에 가까운 수준으로 유지되어 '05년 이후 농가는 목표가격의 97% 이상을 보전 받아 왔음

\* ('14) 농가 실제 수취가격(184730원/80kg) =

수확기쌀값(166198) + 고정직불금(14306) + 변동직불금(4226)  
= 목표가격(188000원/80kg)의 98.3%

\* 쌀 직불금 총 지급액 : ('13) 6866억원 ('14) 9501억원

### 수확기 쌀값 안정과 소득지지 노력, 정부의 약속입니다.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림축산식품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주간  
**전남농업정보** 61호  
VOL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업경영연구소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 58213  
Tel. 061-330-2583 Fax. 061-335-4199